

2.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- 짧은 대화 (2)

이번 단원에서는 실전 풀이법에 대해 배울 거야. 바로 '미리보기'야.* 미리 본다는 게 뭘까? 그냥 읽어본다는 뜻일까? 아니야. 미리 본다는 것은 각 선택지의 Key Word(이하 K·W)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야.

쌤~ T_T 그게 무슨 말이에요? K·W는 또 뭐구요?

걱정 마~! 당연히 예시를 들어 줄 거야. 아래의 선택지를 보고 K·W라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봐.

2. 대화를 듣고,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(13. 3월)

- ① Okay. I'll help you find an interesting topic.
- ② I'm glad that you came to my art presentation.
- ③ You'll learn a lot about art through the presentation.
- ④ Don't worry. Your presentation was not boring at all.
- ⑤ I have no idea why the presentation schedule was changed.

여기서 K·W란 각 선택지를 다른 선택지와 구분 지어주는 단어들을 말해. 혹시나 ②~⑤번의 'presentation'에 밑줄을 짝~짝~ 그은 학생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어봐.

내가 생각한 K·W는 이거야.

- ① Okay. I'll help you find an interesting topic.
- ② I'm glad that you came to my art presentation.
- ③ You'll learn a lot about art through the presentation.
- ④ Don't worry. Your presentation was not boring at all.
- ⑤ I have no idea why the presentation schedule was changed.

- ①번 : 주제 찾는 걸 도와준다는 게 핵심이야. 'interesting'은 굳이 밑줄 그을 필요가 없어. 만약 다른 선택지들이 '어떤' 주제를 고르는지에 대한 거라면 'interesting'이 이 선택지를 구별 짓는 K·W겠지만 그게 아니잖아.
- ②번 : 상대방이 왔다는 게 핵심이야. '내가 기쁘다', '내 미술 프레젠테이션'이란 건 큰 의미가 없지. 또 중요한 건 시제야. 과거형이란 것 놓치지 마.
- ③번 : 배울 거라는 게 핵심이지. 마찬가지로 시제에 유의하고!
- ④번 : 지루하지 않았다가 핵심이야.
- ⑤번 : 스케줄이 핵심이야.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들과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주잖아. ①~④번에서는 스케줄에 대해 다루지 않으니까 만약에 스크립트에서 스케줄에 대해 다룬다면 ⑤번이 답일 확률이 높게 되는 거지.**

* 네 번째 대단원의 제목과 같지? IV.미리보기에서는 I.유추하기에서 다루지 않는 유형들의 실전적 풀이법을 배울 거야.

** 그렇다고 스크립트에 schedule 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바로 답으로 찍진 말아줘.

어떤 식으로 하는지 감이 오지? 처음에는 K·W를 찾는 게 오래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5개의 선택지를 미리 보는 데 10초 이내로 할 줄 알아야해. 그걸 어떻게 하냐고? 걱정 마~ 가르친 학생들 모두가 했으니깐. 그리고 실전에서 K·W를 찾기 위해서 억지로 고민 할 필요도 없어. 애매할 때는 그냥 지나가면 돼.

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? 바로 앞 단원에서 언급만하고 다루지 않았던 틀리는 이유에 대한 Solution이기 때문이야.

B. 긴장해서 제시된 대화를 잘못 들음 (빠르게 지나감)

C. 대화를 잘 듣고 선지를 읽어나가면서 답을 찾는데! 미처 답을 찾기 전에 다음문제 방송이 나옴 ㅌ_ㅌ

B의 이유로 틀리는 학생들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듣기가 속~!하고 지나가버린다고 얘기하더라구. 그래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해봤고 Solution을 찾았지. ①~⑤번의 선택지는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야. 즉, 5개의 선택지를 미리 보면 대충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지 알 수 있다는 얘기지. 이와 관련해서 0.친해지기의 QnA의 내용을 다시 보자.

QnA

Q: 선생님~ 저는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는데 유형별로 푸는 법인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요? ㅌㅌ

A: 좋은 질문이야!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학생들은 부분 부분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.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17문제 중 10문제 이상은 맞혀. 이게 무슨 의미일까?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야.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틀린 후에 다시 들을 때는 처음 들었을 때 보다 잘 들리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야. 예를 들어, 1~2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같은 경우는 너무 급작스럽게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듣기가 끝나. 이 경우에도 '잘 안들린다.' 라고 표현하지. 하지만 다시 들을 때는 대충 어떤 주제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미리 알고 듣기 때문에 안 들리던 부분이 들리게 되는 거지.

이처럼 학생들을 관찰해 본 결과, 듣기가 정말 안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각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. 이 책은 '부분적인 것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'중요한' 부분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.

물론, 듣기가 잘 안 되는 학생은 이 책과 함께 최소한의 듣기 연습을 병행해야 해.

친하게 표시된 부분을 읽어 봐. 이렇듯 미리보기를 하면 선택지를 통해서 대화의 주제나 상황에 대해 미리 짐작할 수 있어. 정말 그런지 한 번 알아보자.

아래 문제들의 선택지를 읽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로 얘기하는 지 맞춰 봐.

2. 대화를 듣고,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(16. 수능)

- ① Don't worry. The forecast says it'll clear up soon.
- ② You're too late. Your flight already departed.
- ③ Then, I'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ticket.
- ④ That's right. We can reschedule your meeting.
- ⑤ No problem. We'll change your seat to the aisle side.

15.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, Peter가 Sandra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(15. 수능)*

- ① I think you need to take a break for a while.
- ② I recommend you return your book soon.
- ③ I'd suggest changing where you study.
- ④ you'd better review what you learned.
- ⑤ you should've slept more last night.

첫 번째 5개의 선택지는 딱 봐도 **공항에서 직원과 고객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**이지?

두 번째 5개의 선택지는 **공부와 관련된 충고를 해주는 상황**이란 걸 알 수 있어.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?

이 연습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줄게. 앞 단원의 QnA에서 다룬 이야기야.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인 작년 수능 2번을 틀렸어. 그리고 그 이유로 말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라고 했지. 앞부분을 놓쳐버리니깐 멘붕이 와서 틀렸대. 그런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하나같이 빨랐긴 했지만 선택지를 보고 어떤 상황/주제가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다고 말했어.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있으면 그 상황/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도 상황/주제를 전혀 모를 때보다 잘 들리거든. '듣기가 잘 들리지 않아서' 틀리는 학생들은 이 점을 모른 채 주구장창 듣기 모의고사만 풀고 있는거고..

한 번만 더 연습해 보자.

2. 대화를 듣고,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 (15. 수능)

- ① No problem. I'll pick up your daughter.
- ② You're welcome. It's my pleasure.
- ③ Wow, this winter is really cold.
- ④ I agree. The timing isn't good.
- ⑤ Okay, let me take a look.

* 뜬금없이 왜 상황유추 유형이 나왔냐구? 상황유추 유형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미리보기를 하면 되거든!

이번에는 감이 잘 안 오지? 걱정하지 마. 이런 문제가 더 쉬운 문제거든. 너희가 출제위원이라 생각해 봐.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고 싶겠어? 선택지들이 깊은 연관을 갖도록 만들고 싶겠지. 그래야 헛갈릴 테니깐.* 반대로 쉽게 내려면? 앞의 문제의 선택지들처럼 연관이 없게 만들어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겠지.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더 쉬운 지 이해됐지?

틀리는 이유 B는 이제 해결이 됐어. 그렇다면 틀리는 이유 C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?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미 눈치 챘을 거야. 선택지를 미리보고 K·W에 표시까지 했으니 선택지를 미처 다 보기 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일은 없겠지. 틀리는 이유 C도 해결 완료!

근데요 쌤.. 언제 미리봐요?

언제 미리 보는지는 IV.미리보기에서 다루지만 모의고사를 풀면서 I.유추하기에서 배운 것을 적용시키려면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161p 실전 풀이법 종합(3)을 참고할 수 있도록!

자, 그럼 이제 연습문제를 풀어보자!

* 이 말은 조금 전에 다룬 2016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2번의 선택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. 이 문제는 이례적으로 70%대의 정답률을 기록했어. 듣기 치곤 정말 낮은 정답률이지.